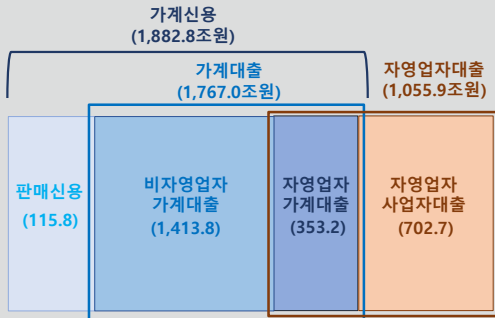


참고 1.

최근 가계·자영업자 대출 동향 및 연체율 변동 특징¹⁾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²⁾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금융긴축 지속 및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차에서는 가계부채DB 등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계 및 자영업자의 대출 동향과 연체율 변동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참고 1-1).

참고 1-1.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현황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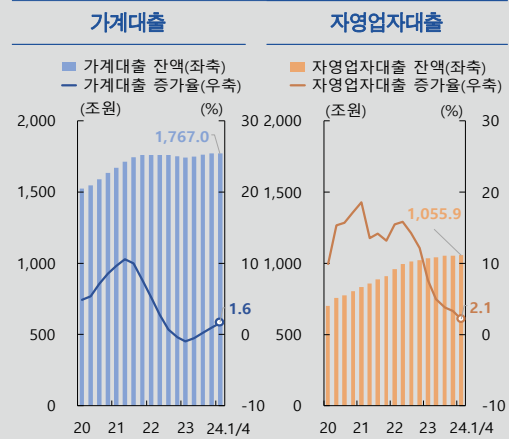
주: 1) 2024년 1/4분기말 기준
 2) 가계신용 및 가계대출은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부채DB 상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산한 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가계신용통계),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동향

2024년 1/4분기말 현재 가계대출(가계신용통계 기

준)은 1,767.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늘어나며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자영업자대출(가계부채DB 기준)은 1,055.9조원(개인사업자대출 702.7조원, 가계대출 353.2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참고 1-2).

참고 1-2. 가계·자영업자 대출 증가율¹⁾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가계신용통계),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최근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변동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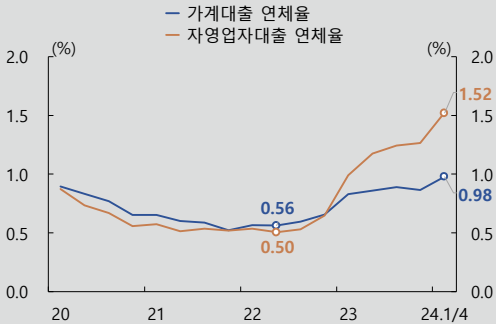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취약차주에서 뚜렷

가계대출 연체율(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과 자영업자대출 연체율(가계부채DB 기준) 모두 2022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2022년 2/4분기말 0.56%에서 2024년 1/4분기말 0.98%로 상승한 가운데,

1) 본고는 김재영·이해인(안정총괄팀), 편도훈·김우섭(안정분석팀)이 작성, 서평석(금융안정기획부장)·임광규(안정총괄팀장)·김정호(안정분석팀장)가 검토하였다.
 2) 본고에서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부채(가계신용)에서 판매신용(신용카드 할부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자영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총량 지표(대출잔액, 연체율 등)는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금융기관 업무보고서상 수치를 활용하였으며, 가계대출의 차주별 지표(연체차주 수, 취약차주 등)와 자영업자대출의 모든 지표는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통해 추정된 수치를 활용하였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동 기간중 0.50%에서 1.52%까지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참고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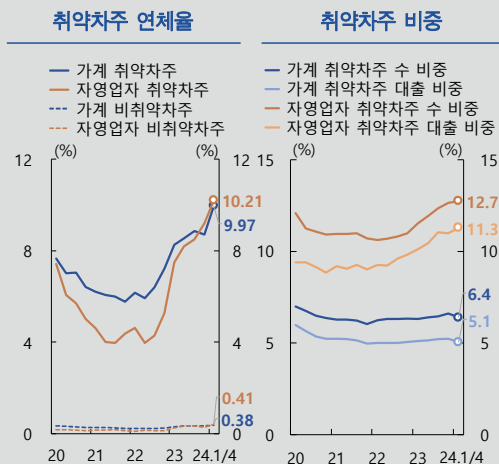
참고 1-3.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전체 차주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차주³⁾의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가계 취약차주에 비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24년 1/4분기말 현재 10.21%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9.97%)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차주 수 비중(전체 차주 수 대비)도 가계보다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2024년 1/4분기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각각 6.4% 및 12.7%로, 2022년 2/4분기말 대비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비중의 상승폭(+2.0%포인트)이 가계(+0.1%포인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참고 1-4).

참고 1-4. 가계·자영업자 취약차주¹⁾ 연체율²⁾ 및 비중



주: 1)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2) 자영업자와의 비교를 위해 가계부채DB로 추산한 연체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과거 금리상승기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개인사업자대출⁵⁾ 연체율의 상승세는 가파른 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번의 금리상승기⁶⁾(① 10년 3/4분기~11년 3/4분기, ② 17년 1/4분기~19년 1/4분기)에 비해, 금번 금리상승기중³⁾ 21년 3/4분기~23년 4/4분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1-5).

먼저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금번 금리상승기 초기에 더디게 높아지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①번 금리상승기에는 가계 대출금리 상승폭⁷⁾이 비교적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되면서 연체율 상승폭이 컸으며, 금리상승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택경기 부진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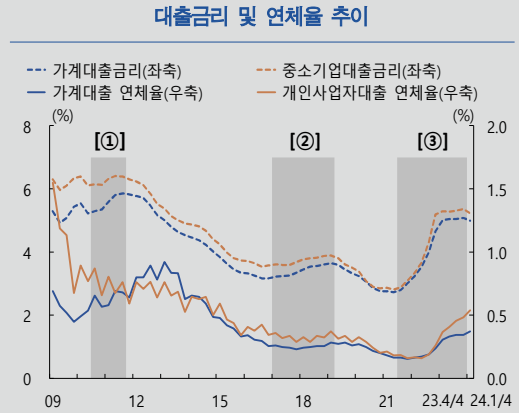
3) 다중채무자(대출기관 수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였다. 다만 자료 제약 등으로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로 정의하였다.
4) 취약차주 대출 비중(전체 차주 대출잔액 대비)도 동 기간중 가계(22년 2/4분기말 5.0% → 24년 1/4분기말 5.1%, +0.1%포인트)보다는 자영업자(9.2% → 11.3%, +2.1%포인트)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5) 본고에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추정에 활용되는 가계부채DB 자료의 시계가 2012년 이후로 제한되어 있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데이터가 가용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기준으로 연체율의 흐름을 금리상승기별로 비교하였다.
6)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잔액 기준)가 1년 이상 상승한 기간을 금리상승기로 정의하여, 2009년 이후 총 3차례(① 10년 3/4분기~11년 3/4분기, ② 17년 1/4분기~19년 1/4분기, ③ 21년 3/4분기~23년 4/4분기)로 구분하였다.
7) 금리상승기별 가계 대출금리 누적 상승폭: ①번 상승기 +64bp, ②번 상승기 +47bp, ③번 상승기 +234bp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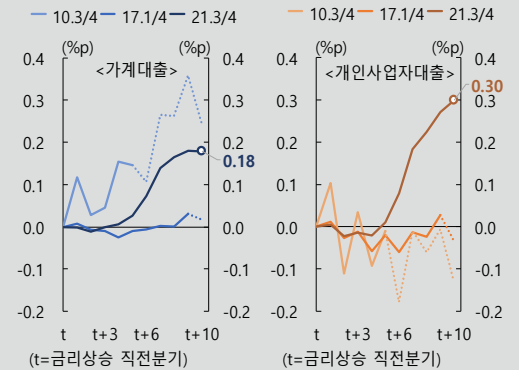
한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경우 금번 금리상승 기증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과거와 달리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과거 금리상승기에는 대출금리 상승폭⁹⁾이 작고 서비스업 경기¹⁰⁾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금리상승 영향이 상당 부분 완충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다소 완만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중 개인사업자대출의 평균 증가세가 비교적 양호¹¹⁾했던 점도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 상승세를 다소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번 금리상승기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데다 서비스업 경기 또한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대출 중 비주택담보대출의 비중¹²⁾이 2024년 1/4분기말 기준 61.8%에 달하는 등 주된 담보대상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2022년 3/4분기부터 지속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¹³⁾ 또한 그간의 연체율 상승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1-5. 금리상승기¹⁾별 대출금리²⁾와 연체율³⁾



금리상승기별 연체율 누적 변동폭 비교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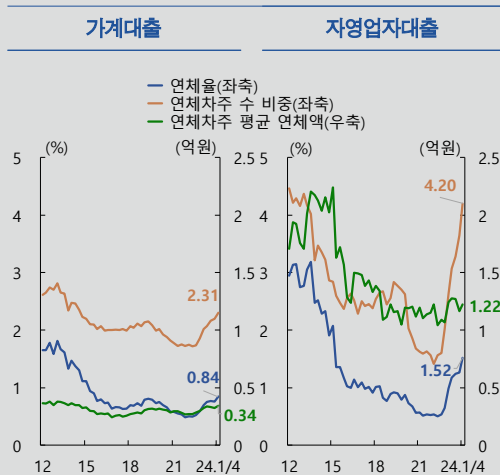
주: 1) 금리상승 시작분기부터 금리하락 직전분기 기준
 (① 2010년 3/4분기-2011년 3/4분기, ② 2017년 1/4분기-2019년 1/4분기, ③ 2021년 1/4분기-2023년 4/4분기)
 2) 예금은행 기준평균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금리(잔액 기준)
 3) 자료제한 등으로 연체율은 국내은행 기준
 4) 실선은 금리상승 기간, 점선은 금리상승 종료된 기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8)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011년 3/4분기 6.1% → 2012년 2/4분기 2.2% → 2013년 1/4분기 -2.2%
 9) 금리상승기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누적 상승폭: ①번 상승기 +30bp, ②번 상승기 +31bp, ③번 상승기 +254bp
 10) 서비스업생산지수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경상가격 기준): ① 10년 3/4분기 4.3% → 11년 2/4분기 5.8% → 11년 3/4분기 7.4%
 ② 17년 1/4분기 4.4% → 18년 1/4분기 4.3% → 18년 4/4분기 4.5%
 ③ 22년 2/4분기 12.2% → 22년 4/4분기 10.0% → 23년 4/4분기 3.0%
 11) 연체율은 연체액(분자)과 대출액(분모)의 상대적인 증가 규모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데, 금리상승기별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액과 대출액의 분기평균 증가율을 보면, ①번 상승기(각각 3.1%, 1.6%)와 ②번 상승기(3.8%, 2.2%)에는 두 증가율이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③번 상승기(12.3%, 1.1%)의 경우 대출액 증가 규모에 비해 연체액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 2024년 1/4분기말 전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의 대출유형별 비중(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
 : 비주택담보대출 61.8%, 주택담보대출 13.9%, 신용대출 10.3%, 보증대출 10.5%, 기타대출 3.5%
 13)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은 2022년 2/4분기 기준 약 621만원을 기록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2023년 4/4분기 560만원까지 하락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참고 3> 「최근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동향 및 리스크 점검」을 참고하기 바란다.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는 연체차주 수 증가에 주로 기인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변동 요인을 연체차주 수 비중과 연체차주의 평균 연체액 등으로 분해¹⁴⁾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는 주로 연체차주 수 비중의 상승, 즉 전체차주에 비해 연체차주가 더 빠르게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4분기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0.34억원과 1.22억원으로, 연체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2022년 2/4분기말(각각 0.27억원, 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¹⁵⁾ 반면 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차주 수 비중(연체차주 수/전체차주 수)은 2024년 1/4분기말 각각 2.31%와 4.20%로, 2022년 2/4분기말 1.72%, 1.57%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1-6).

참고 1-6. 가계¹⁾·자영업자 연체차주 수 비중 및 평균 연체액



주: 1) 자영업자와의 비교를 위해 가계부채DB로 추산한 연체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특히 동 기간중 자영업자 연체차주 수 비중(+2.63% 포인트)이 가계(+0.59%포인트)에 비해 빠르게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큰 폭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차주 수 비중 상승폭(+2.63% 포인트)이 연체율 상승폭(+1.01%포인트)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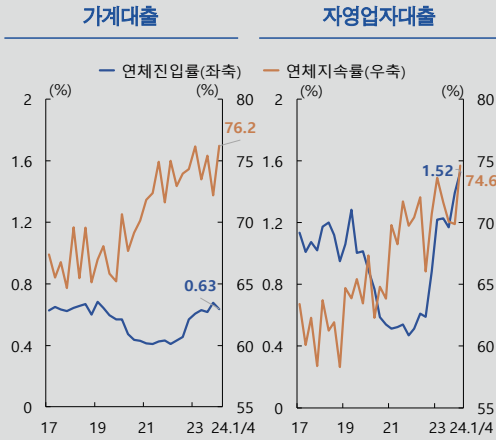
가계와 자영업자 모두 신규 연체 차주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경향

최근 증가한 연체차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매 분기 연체차주를 직전 분기의 연체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계와 자영업자 모두 신규 연체진입률(전분기 비연체차주 중 당분기에 연체로 전환된 차주 비율)이 2022년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4분기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차주의 신규 연체진입률은 각각 0.63% 및 1.52%로, 2021년 4/4분기말(0.43%, 0.47%)에 비해 상승하였다. 한편 연체차주의 연체지속률(전분기 연체차주 중 당분기에 연체상태를 지속하는 차주 비율)을 살펴보면, 가계 및 자영업자 모두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참고 1-7).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긴축적 수준의 대출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매분기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들이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누증되면서 전체 연체차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체지속 차주의 누증은 당분간 연체율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4) (연체율) = $\frac{(\text{연체 대출금액})}{(\text{전체 대출금액})} = \frac{(\text{연체 차주수}) \times (\text{평균 연체액})}{(\text{전체 차주수}) \times (\text{평균 대출액})} = \frac{(\text{연체 차주수})}{(\text{전체 차주수})} \times (\text{평균 연체액}) \times \frac{1}{(\text{평균 대출액})}$

15) 한편 가계 및 자영업자 전체 차주의 평균 대출액 규모(2024년 1/4분기말 각각 0.94억원 및 3.38억원)도 2022년 2/4분기말(각각 0.94억원, 3.24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참고 1-7. 가계·자영업자의 연체진입률¹⁾ 및 연체지속률²⁾



주: 1) 전분기 비연체차주 중 당분기에 연체로 전환된 차주 비율
 2) 전분기 연체차주 중 당분기에 연체상태를 지속하는 차주 비율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평가 및 시사점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연체율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금번 금리상승기의 경우 과거 상승기와 달리 큰 폭의 대출금리 상승과 서비스업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로서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의 비중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신규로 연체에 진입한 차주가 가파르게 증가한 가운데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연체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¹⁶⁾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소득 및 이자상환부담 등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16)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10.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지원대상 확대(코로나19 피해요건 폐지, 2.1일),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2년→1년, 3.12일)으로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누계액이 11.1조원(23년말 7.4조원)까지 증가하였다.